

‘7개월짜리 당대표’ 현실화...전대를 개정 고개

민주, 최고위원 임기 보장안·순수 집단지도체제 등 거론

8월 전대 준비 시작...전준위원장 안규백·선관위원장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사실상 당권 도전 선언을 앞둔 가운데 김부겸 전 의원에 당권 도전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물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방침에 따라 이들 대권 주자가 당 대표에 선임되더라도 7개월짜리 임기에 그치지 때문이다.

지난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대권 도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에 사퇴해야 한다. 임기가 7개월에 불과한 셈으로, 대권주자가 7개월 임기를 하겠다고 당권에 도전하는 경우는 근래

유례를 찾기 어렵다.

당내에선 지난 2015년 2월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당선된 뒤 11개월 재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례를 들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탄핵 사태가 없었다면 지난 대선은 2017년 12월에 치러질 예정이었다. 당시 문재인 대표로선 2016년 12월까지, 거의 2년이 보장된 상태에서 대표 임기를 시작한 셈이다. 문 대표는 2016년 1월 물러났는데, 그것은 안철수 비주류의 집단 탈당 사태로 김종민 씨를 총선 구원투수로 영입했기 때문이지 대권을 위해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니었다.

7개월짜리 대표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에서는 전대를 개정 여론이 높아질 조짐

을 보인다. 먼저 대표와 별도 선거로 선출되는 최고위원의 2년 임기 보장안이 거론된다. 내년 3월 대표가 나가면 최고위원은 자리를 지키고, 잔여 임기를 채울 대표만 뽑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위인설관 식으로 전대를 바꾼다면 집권여당이 특정주자 밀어주기를 위해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난에 두고두고 시달릴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대표가 관둘 것을 대비해 최고위원 임기를 미리 보장해주겠다는 건데, 이는 특정인을 위한 길 터주기 아니냐"고 했다.

이런 계기에 최고위원을 대표와 동시에 선출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도 되돌아가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2위 차점자가 대표직을 승계하도록 해 지도부 공백을 막자는 것이다. 전대 준비위원장 안규백 의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국정을 안정

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집권여당이 몇개월 사이 전대를 또 여는 것은 좋지 않다"며 지도체제 변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순수집단지도체제는 '자고 나면 대표가 차점자로 바뀐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구조적인 계파갈등에 노출돼 있다. 6월 중순 본격화될 당권 레이스는 21대 국회 개원과 일정이 겹친다. 당내에선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고려해 어떻게든 전대를 문제에 소속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해진 대표의 후임 당 대표를 선출할 8월 전당대회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전대 준비위원장은 안규백, 선관위원장은 민홍철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조직강화특위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윤호중 사무총장이 맡는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靑 의전비서관 탁현민·교육비서관 박경미

비서관 7명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일 청와대 교육비서관에 박경미(55)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의전비서관에 탁현민(47)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을 발탁했다.

또 사회통합비서관에 전남 목포 출신의 조경호(54)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을, 홍보기획비서관에 한정우(49) 춘추관장을, 해외언론비서관에 이지수(56)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위원장을, 춘추관장에 김재준(49)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을, 시민참여비서관에 이기현(52)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내정했다.

이번 인사는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비교적 젊은 참모들을 요직에 기용해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성과 창출의 역량을 보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대 수학교육학과를 졸업한 박경미

교육비서관은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 출신으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영입돼 지난 4년간 국회 교육위 등에서 활동한 교육 전문가다. 공영기획 전문가인 탁현민 의전비서관은 성공회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2017년 대선 때 문 대통령 캠프에서 토크콘서트 등 행사를 주도했고 정부 출범 후 대규모 기념식 등의 기획을 맡았다. 조경호 사회통합비서관은 목포고와 서울대 서어서문학과를 졸업한 뒤,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부비서관실과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이번이 승진 발탁됐다.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은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출신으로, 정부 출범 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부대변인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춘추관장으로 일하며 언론과 계속 소통해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회의원 전남 당선인 워크숍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9일 오후 광주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전남 당선인 워크숍에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친 뒤 당선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동용·김원익·김희재·소병철·주철현 당선자, 김영록 전남지사, 이개호·서삼석·윤재갑·신정훈·김승남 당선자.

윤미향 의원 "사퇴없이 검찰 수사 임하겠다"

심터·계좌 의혹 규명 검찰로

논란을 빚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사퇴 없이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혀 진상 규명은 결국 검찰 몫이 됐다.

검찰은 30일로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 된 윤 의원에 대한 조사 방법과 시기를 신중하게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전 이사장인 윤 의원은 지난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퇴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 뒤 20일 의회 계기에 침묵하다 11일 만인 이날 공식 석상에서 해명했으나 해명 내용은 정의당이 기준에 밝힌 것에서 크게 나가지 않았다.

윤 의원과 관련 있는 핵심 의혹은 안성심터 건물 매입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모금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모금에 일부가 사적

으로 유용했는지 등 크게 2가지가 꼽힌다. 검찰도 이와 관련한 배임·횡령 혐의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검찰청은 윤 의원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에 자금추적 전문 수사관을 파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공적자금 투입된 사건과 동일하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의혹 규명을 주문했다.

이날 윤 의원은 안성심터 조성 과정에서 주택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구매한 뒤 손해를 보고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 9억 원 매물을 7억5천만원에 구입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의당은 심터 의혹에 대해 "결국적으로 사법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심터 조성과 관련한 개인 비리나 기부금 남용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정의당 "21대 국회서 비동의 강간죄 입법 우선 추진"

정의당은 지난 31일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 등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을 열어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차별 및 젠더 폭력 근절 등 3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국민 고용보장 제도 도입,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5대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외면한 비동의 강간죄 법안의 경우 가장 먼저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다.

심 대표는 그린뉴딜특별법과 관련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40%까지 늘리고 온실가스를 50% 감축하는 등 탄소사회의 대전환을 담은 특별법은 정의당의 합판으로는 안 된다"며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통과 시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통합당 김종인호 오늘 출항... '보수' 쎄 경제비대위로

비서실장 송언석·추경호 물망

대변인엔 김은혜 유력

미래통합당 새신을 책임질 김종인 비대위가 1일 첫 발을 댔다.

당 관계자는 지난 31일 "김종인 비대위가 1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갈 것"이라며 "회의 등 기본 일정을 제외하고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에 초점을 맞춰 '경제비대위'로 스스로의 성격을 우선 규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당의 정책 기조를 '약자와의 동행'으로 잡고, 성장 중심의 보수 경제 노선에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밀 방침이다. 차기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기본소득을 포함해 사회안전망 전반을 아우르는 전면적 혁신을 구상 중이다.

비대위 인선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비서실장으로는 재선 의원 가운데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경제통'인 송언석·추경호 의원 등이 거론된다.

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올해 최악의 경제성장률이 예측되는 가운데 짧은 시간 내 야당으로서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단순한 의전이 아니라 김 위원장과 경제 문제의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당 안팎에선 비대위 체제 전환과 함께 3차 추경을 비롯해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에 일정 수준 발을 맞출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현금 살포식 재정확대보다는 지출 용도를 꼼꼼히 따져 경기 부양 효과와 극대화해야 한다는 게 당 지도부의 입장이다.

김종인의 '입'에는 21대 국회에 첫 입성한 김은혜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MBC 뉴스데스크의 기자 출신 첫 여성 앵커를 지냈고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으로 공직에도 몸담아 소통·정부 능력 등이 장점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기적의 침술

현대의학으로 잘못고치는 병

고혈압, 당뇨병, 중풍마비, 불치의 통증, 남녀성욕감퇴

고대의술침을 한번만 맞으면 단한번 치료로 모든 병을 고칩니다.

부산 010-8491-2060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린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세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리리 산 116-12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리리 391-2
2. 분묘기수: 13기
3.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원분묘: 연고자(신고자)가 직접 개장
- 무원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5.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장소: 인근공공 추모공원 또는 공인된 납골당
7. 안치기간: 10년
8. 신고처: 유증형(010-6240-5555)
9. 신고사유: 연고자 임의 또는 호적, 제적등본, 묘지고지서등
10. 기타사항: 상기 지번내에 선별이 불분명하게 누락되어 추가 발견된 분묘에 대해서도 이공고도 감함함.
2020년 6월 1일
공고인 유증형, 나윤희

光州日報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산행안내

6월3일(수)
▲광주청록산악회 6월3일(수) 전남 신안 비금도 선왕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06:00, 교직원 공제회관 06:10, 예술회관 후문 06:20, 각화동 현대물류 06:3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6월6일(토)
▲광주청록산악회 6월6일(토) 여수 남도 상산 해안트레킹, 봉선동롯데마트앞 07:10 진월동식자재마트앞 07:20 염주체육관 07:30 한곡병원앞 07:40 문예회관정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 입구 08:0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6월10일(수)
▲광주청록산악회 6월10일(수) 충북 제천 풍산-작성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06:30, 교직원 공제회관 06:40, 예술회관 후문 06:50, 각화동 현대물류 07:0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6월17일(수)
▲광주청록산악회 6월17일(수) 경남 거창 우두산-의상봉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07:30, 교직원 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 후문 07:50, 각화동 현대물류 08:0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